

웃둥 보살 빛둥 거사 <8>

구성 : 김흥민



떡 하나 때문에 도둑맞은 부부 [백유경(百柳經)]



어느 부부가 떡을 나눠먹다 한 개가 남았다. 누구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것으로, 이기는 사람이 남은 떡을 먹기로 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 집안 재물을 모두 뒤져도 부부는 하나 남은 떡을 먹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물을 모두 챙긴 도둑이 부인을 겁탈하려하자 부인이 '도둑이야'라며 소리쳤다. 남편은 떡을 먹게 됐다며 손뼉 치며 기뻐했다. 범부들도 이와 같이 작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침착하고 있으면서 선법을 잃고 삼악도에 떨어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않고 출세할 길만 구한다. 다섯가지 쾌락에 빠져 놀며 큰 괴로움을 당해도 환란이라 생각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남편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인과 이야기(백구가 부처님을 보고 짓다) 백구폐불(白狗吠佛)

불암사판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로,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세존이 사위국에 들어가 영무마납도제의 아들 집에 이르렀을 때다. 도제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백구가 침상 위에서 쟁반의 음식을 먹다가 부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침상에서 내려와 부처님을 향해 짖었다.

부처님이 백구를 향해 말하기를, "너는 재물을 지킨 인연으로 개의 몸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백구는 크게 노여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시름에 싸여 자리에 드러누웠다.

도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개가 땅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집안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누가 이 개를 화나게 했느냐?" 세존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삽화에는 성이 난 도제가 부처님에게 찾아가 따지는 모습과 부처님이 도제를 위해 설법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개는 네 아버지다. 믿지 못하겠거든 집으로 돌아가 개에게 감추고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 달라고 묻거라."

도제는 집에 돌아와 개에게 말했다. "만약 네가 전생에 내 아버지였다면 일어나 밥을 먹고, 네가 숨고 있는 것을 내게 보여라!" 개는 숨긴 곳을 보이며 입과 발로 침상 밑을 긁어 파헤쳤다. 땅에서 많은 보물이 나왔다. 큰 신심이 일어난 도제는 속세의 인연과 행한 업에 대한 과보를 부

처님에게 물었다. 부처님이 말했다. "남자와 여자의 수명은 극히 짧다. 그러나 살생 등 업보의 수명은 극히 길다. 지비심이 있어 살생하지 않아도 가난하고 궁핍하며 지극히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흠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넉넉한 재물과 보배를 가진 사람이 많다. 항상 보시하는 사람 가운데도 악한 지혜를 지니고 악한 사람과 악한 말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지혜가 있고 선지식과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다. 도제야, 항상 알아두어라! 오래 사는 업은 반드시 오래 살 수 있고, 보시하는 업을 지은 사람은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된다. 널리 배우고 많은 것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지혜를 얻는다. 이 같은 인연을 지으면 이같이 감응하게 된다. 모든 중생들은 자기가 행한 업에 기인한 업으로 인해 과보를 얻는다. 업에 연유하고 업을 근거해 선악에 따라 과보도 스스로 나눈다."

불교의 핵심교리 중 하나가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다. 공 심은데 공 나고 팔 심은데 팔 나 온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 심은 사람은 팔 나고 팔 심은 사람은 공 나는 듯 착시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 나타난다. 자기가 행한 업에 원인이 돼 과보 받는다는 인과의 진리는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이 삽화를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하고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교편학박물관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백구폐불(白狗吠佛)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각(半郭) 27.2×18.0cm

허허당의 세상만사



고독한 비명

가끔은 세상이 그리울 때도 있지요. 내가 나를 유쾌시킨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지만. 가끔은 세상이 그리울 때가 있지요. 깊은 산, 외로운 섬, 산짐승도 외로워 홀로 울 때. 가끔은 나도 눈물이 나오요. 내가 나를 가두긴 했지만. 가끔은 세상이 그리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내가 그리울 땐, 더 깊고 먼 곳으로 도망가지요.

대웅전 건립불사

전선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 바랍니다

행복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진 기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에서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선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 016-509-0462
FAX 054)771-6606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화 041)331-6863~5
팩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한글 전문 겸용 불교상용 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소개

-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애고 집전자의 작은 예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실합니다.

구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 범우당 02)999-8315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권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